

## 협회 소식



지난 7월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협회 회의실에서 이방주 회장을 비롯한 김정호 위원장(강원발전연구원 원장) 등 주택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관련 정책 시행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주택 경기 연착륙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양일에 걸쳐 서울 르네상스 호텔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선진국

의 부동산 개발 금융과 세제'를 주제로 위스콘신대 제임스 실링 (James D. Shiling) 교수 등 해외 석학들을 초청해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 분양 시장의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역 맞춤형 주택 관련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으며 국제 세미나 주제 발표는 실증적 사례 중심으로 발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 회원사 소식

### 금호산업, 강원 평창 찾아 수해복구 자원봉사

임직원 및 신입사원, 협력회사 직원 100여 명 참여



금호건설(대표이사 신훈 부회장) 임직원 및 신입사원 100여 명이 수해복구를 위해 강원도 평창을 찾아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되살리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가며 수해복구 작업을 전개했다. 임직원들은 농가에 유입된 토사로 인해 매몰된 비닐하우스 7

개 동 중 2개 동의 비닐하우스 철거와 쓰레기 및 토사를 제거, 바닥 평탄 작업 등을 위해 덤프 트럭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지난 5일까지 실시했다. 한편

신훈 부회장은 각 현장에 "인근 수해 피해가 심한 지역을 찾아 복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 대림산업, 임직원 자녀 초청 미술전시회



대림산업(대표이사 이용구)은 7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은 임직원 자녀들을 종로구 통의동의 대림미술관으로 초청해 국내 유명 작가들의 미술 작품들을 관람하고 직접 미술 작품도 제작해보는 등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종

기 회백의 '아토마우스(Atomous)', 사진작가 배병우 씨의 '소나무'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며, 대상 및 크로키, 종이접기 등을 직접 배워볼 수 있는 체험학습 시간도 마련돼 어린이들이 문화 예술적 소양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합성 가족사진 촬영, 호텔 출장 뷔페 등 온 가족이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제공된다. 특히 종이접기 배우기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곤충 모형 같은 종이 조형물 만들기를 실습하기 때문에 여름방학 숙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는 '임직원 자녀 미술관 초청행사'는 하루 만에 6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했을 정도로 직원 가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대림산업 홍보팀장 배선용 부장은 "오늘날 가족친화 경영은 단순히 비용 요인으로만 작용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충성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쌍용건설, 임직원 자녀 초청 '자연 문화 체험'



쌍용건설(회장 김석준)은 최근 강원도 강릉시에서 임직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꾸러기 캠프 '푸르른 대관령에서의 자연 체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본사와 현장의 임직원 자녀 164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여름방

학을 맞이한 직원 자녀들의 체험학습과 단체생활 교육을 위해 마련된 것. 첫날은 대관령 양떼목장 자연 체험의 시간을 가졌으며, 둘째 날은 물놀이와 에디슨과학 박물관 견학 등 다양한 행사가 실시됐다.

쌍용건설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원 가족 및 자녀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에는 역사 및 자연 체험 등을 주제로 한 팀방 캠프를, 겨울방학에는 스키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며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실시해 직원 가족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 코오롱건설, '하늘채' 오리엔탈 프리미엄 아파트로 새롭게 도약

코오롱건설(대표이사 민경조)은 8월 4일 아파트 브랜드 '하늘채'의 로고 디자인을 바꾸고 오리엔탈 프리미엄 아파트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발표했다. 코오롱 하늘채가 추구하는 '오리엔탈 프리미엄'은 그동안 서양의 첨단기술과 화려한 건축양식에 가려 빛을 발하지 못했던 동양적 가치를 주거 공간을 통해 일깨우자는 배경하에 개발된 것으로, 동양의 우수한 가치와 감성을 서양의 첨단기술과 조화시켜 구현한 새로운 프리미엄 아파트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선보인 TV광고는 기존 아파트 광고의 고정관념을 깨는 새로운 스토

타일로 '신비 & 고급스러움'을 테마로 오리엔탈 프리미엄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8월 1일부터 전파를 타기 시작한 하늘채 광고는 '신비롭고 매혹적인 여인이 한 남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아쉽게 사라져가는 모습'을 몽골의 전통 악기 마두금과 런던팔하모니의 연주가 빛어낸 몽환적인 배경음악과 함께 표현함으로써 오리엔탈 프리미엄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와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코오롱건설 관계자는 "서구 지향적인 첨단 웰빙 프리미엄 일석인 아파트 시장에 동양의 우수한 가치와 감성을 내세운 하늘채가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며 이는 더욱 치열해질 재건축·재개발 수주전과 분양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 한화건설, 꿈에그린 새 얼굴(BI) 선보여

'고품격 친환경 주거 공간'의 브랜드 컨셉트 한층 강조



꿈에그린

한화건설(대표이사 김현중)이 '꿈에그린'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Brand Identity)를 선보였다. 3개월의 산고 끝에 탄생한 '꿈에그린 새 BI'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친환경 고품격 주거 공간'을 만들기 위한 한화건설의 건축 미학이 담겨 있다. 특히 기존 사각 형태를 안쪽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그래픽

모티브를 산·새·풀로 단순화해 전체적으로 세련된 느낌을 주었으며, 상단의 그린 컬러는 자연주의를, 하단의 블루 컬러는 첨단 건축기술을 상징한다. 또한 '꿈에그린' 워드 마크 역시 심벌과 어울리는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된 서체다.

한화건설 김현중 대표이사는 "비리뉴얼을 계기로 '품질과 서비스' 면에서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해 단순히 심벌 변경이 아닌, 자연주의 대표 아파트로서 고품격 라이프스타일의 주거 공간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SK건설, 외국인 근로자 한국 문화 체험활동 실시



SK건설(대표이사 손관호)이 지난 8일 용산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내 외국인 직원들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한국 문화 체험활동'은 박물관 내 도자 공예실 투어와 도자기 공예 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졌

으며, SK건설에 근무하고 있는 인도·필리핀 국적의 엔지니어들과 그 가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SK건설은 외국인 직원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사내 외국인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주 2회 개최하고 있으며, 박물관 관람, 시내 투어 등 문화 체험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SK건설 기술지원팀 배종호 부장은 "외국인 직원들이 우리말과 우리 문화에 익숙해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행사를 실시했다"며 "내국인 직원들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업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